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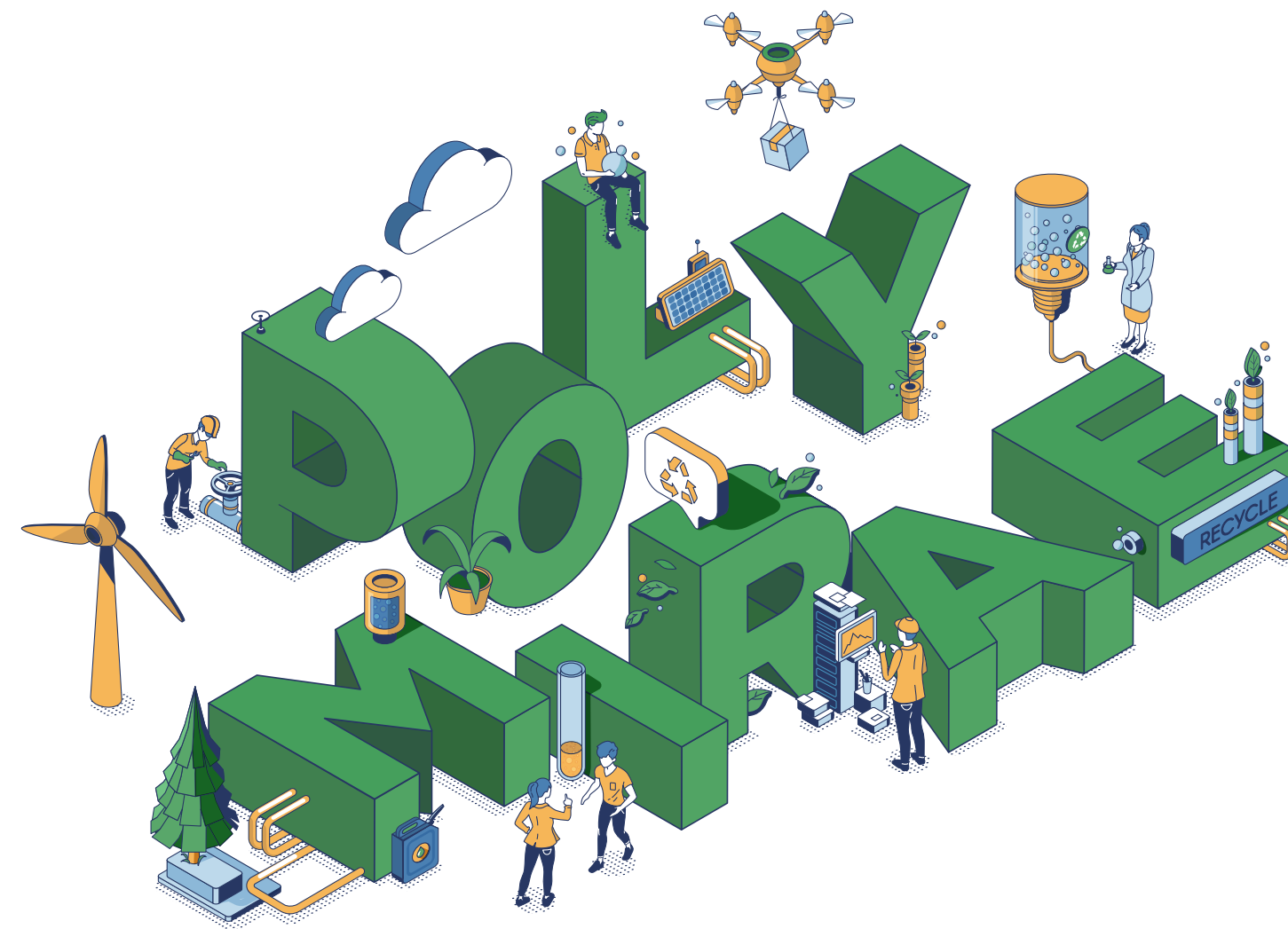
**duce.
use.
cycle.
peat.**

폴리미래의 Circular PP는 폴리미래의 우수한 품질의 Virgin PP와의 배합으로 만들어진 최적의 물성을 보유한 친환경 PP입니다.

본사_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17층 (우)07326 공장_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 2로 220-10 3호 (우)59611
www.polymirae.com

2023 **Summer** | Vol.50

PolyMirae Vol.50 2023 Summer



One Team,
Shaping a better future





기회는 모든 사람의 문을 한 번씩은 두드린다.
노크를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자신 이를 깨우고 기꺼이 그를 위해 야간 경비원이 된다.

- 핀리 피터 던(Finley Peter Dun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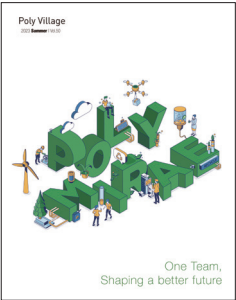
CONTENTS

Poly Village

Vol.50 | 2023 Summer

With Poly PEOPLE

- 02 **생각의 깊이**
- 06 **CEO 레터**
친애하는 폴리미래 비즈니스 파트너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미첼 킬린(Mitchell Killeen) 대표이사/사장
- 08 **아주 특별한 만남**
폴리미래인으로 힘차게 출발한 세 명의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신입 사원
- 12 **자랑 좀 할게요!**
세계 폴리프로필렌 시장의 성장 모델이 되도록
회사의 가치를 해외에 알리는 시장개발팀입니다!
시장개발팀



PolyMirae Magazine

폴리마을 통권 제50호
발행인 미첼 킬린(MITCHELL KILLEEN)
발행처 폴리미래주식회사
Poly Village Vol.50 2023 Summer
발행일 2023년 7월 15일
기획 사보기획팀
디자인·제작 에브리띵디자인
표지 일러스트레이션 스튜디오에딩크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17층
TEL (02)2167-8919



With Poly ISSUE

- 16 **포커스**
폴리미래 미첼 킬린(Mitchell Killeen) 대표이사,
〈2023 APIC〉연설
- 18 **오늘 폴리미래**
좋은 직장의 기준은 ‘경험’을 통해 찾게 됩니다
이진규 전무 CFO
- 사내활동**

20 전사 워크숍 - One Team, Shaping a better future

22 폴리미래 봄나들이, 보성 일림산 산행
- 
- 24 **뉴스 브리핑**
- 29 **인사동정**
- 30 **테마 리포트**
생성 AI 전성시대, ChatGPT가 자소서를 써준다고?
‘우아한형제들’ 하이퍼로컬서비스팀 송요창 프로그래머



With Poly LIFE

- 34 **트렌드 인포**
에너지 쇼크 시대, 관리비 절약 꿀팁은?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 
- 38 **컬처 & 컬처**
바쁜 일상에 하루의 여유를 선사할 문화계 소식을 전합니다!
- 42 **사내활동_영감을 준 책 한 권**
같이 읽어요. 폴리미래 북 클럽
- 44 **퀴즈**





LEADER'S MESSAGE

친애하는 폴리미래의 비즈니스 파트너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지난 3월 새롭게 폴리미래주식회사의 대표이사·사장을 맡게 된 미첼 킬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폴리미래에서 다년간에 다져진 지식과 역량으로 지난 3년 동안 열정적인 리더십을 통해 많은 공헌을 해주신 김방현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김방현 사장님의 앞날에 성공과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폴리미래와 제가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고, 많은 분이 이미 폴리미래를 향한

저의 존경심과 애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폴리미래의 대표이사가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폴리미래가 One Team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CEO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폴리미래는 전 세계 폴리프로필렌 업계뿐만 아니라 폴리올레핀 업계에서 가장 훌륭한 회사가 되기 위해 안전제일, One Team, 혁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폴리미래 CEO로서 제가 맡은 역할은 폴리미래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지식과 기술을 조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훌륭한 주주인 DL Chemical과 LyondellBasell 사이에서 지혜와 역량을 포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폴리미래는 10년 이상 무재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고, 안전과 공정의 탁월성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폴리미래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최고의 신뢰성, 최고의 품질, 서로를 배려하는 최고의 팀워크, 최고의 혁신적인 제품, 가장 신뢰받는 공급업체, 신속한 제품 혁신 및 출시, 최고의 서비스 등, 이 모두는 안전제일을 위한 노력에 뒤따르는 것이며, 이렇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높은 수준의 고객 만족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저는 이 훌륭한 성과들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직원으로부터 진심을 다해 배우고, 조언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자세가 확고한 기반을 유지하게 될 때, 현재 직면한 어려운 시장 환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시장 환경은 우리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도전 과제가 놓여 있는 가운데, 2023년 토끼해를 맞아 저는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신중하지만 빠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비즈니스 환경에는 이런 태도가 더없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첩성을 갖고 빠르고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하지만, 절대 성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폴리미래는 안전제일, One Team, 혁신을 바탕으로 지속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며 책임감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파트너십과 또 다른 혁신으로 이어져 폴리미래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폴리미래 모든 임직원의 노력, 탁월한 능력을 가진 모기업인 DL Chemical과 LyondellBasell의 지원과 역량, 그리고 폴리미래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SK Advanced와의 합작사 Ulsan PP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는 폴리프로필렌 업계에서 더 강하고 자랑스러운, 가장 훌륭한 회사가 될 것입니다.

2023년 7월

미첼 킬린(Mitchell Killeen) 대표이사/사장

폴리미래인으로 힘차게 출발한 세 명의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젊은 날의 귀중한 시간을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데
기꺼이 쏟아온 새로운 인재들과 만났습니다. 폴리미래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입사를 위해 준비해온 신입 사원들의 포부가 든든합니다. 폴리미래에서의 비전을 꿈꾸고
목표를 향해 함께하게 된 세 명의 신입 사원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김지윤 주임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성장하는 폴리미래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폴리미래 안전환경팀 신입 사원 김지윤 주임입니다. 폴리미래 면접을 준비하면서 《폴리마을》과 ‘아주 특별한 만남’을 읽어보며 우수한 기업문화와 폴리프로필렌 시장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좋은 기업이란 생각에 너무나도 가고 싶은 회사였습니다. 꼭 가고 싶은 회사인 만큼 1차 면접, 2차 면접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최종 합격했습니다! 몇 번이고 읽은 《폴리마을》에 저의 인터뷰가 실린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대학생 시절 기업 탐방 등을 통해 환경에너지공학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직무가 무엇일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의 직무 선택 기준은 편안한 직장보다는 실력을 키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회사의 안전환경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번에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폴리미래 입사 후 무재해 4000일 달성이라는 뜻깊은 날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Safety First’,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는 회사인 만큼 안전환경팀에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수에 도착한 후 선배님들께서 맛있는 음식도 사주시고 이 지역 명소도 알려주셔서 동기들과 함께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폴리미래는 “본인이 노력한 만큼 보여줄 수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만큼 3개월간 선배님들께서 바쁜 상황에도 열심히 교육해주신 내용을 제 것으로 만들어 성장하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폴리미래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직원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강욱 주임

새로운 기회를 거머쥐고 다시 도약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폴리미래 화공엔지니어 신입 사원 김강욱 주임입니다.

지인을 통해 아주 좋은 회사의 채용 공고가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회사는 바로 폴리미래였습니다. 폴리미래의 첫인상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독보적인 Specialty 제품을 생산하면서 무재해 4000일을 달성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서 함께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꿈에 그리던 폴리미래에 입사하게 돼 너무 기쁩니다. 여수 공장에서 교육을 받으며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화공엔지니어 업무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됐지만 선배님들의 지나간 길을 보면서 자신감과 도전 의식이 생겼습니다. 또한 교육 중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친절하게 답변해주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본받고 싶었습니다. 화공엔지니어로서 PP 산업을 책임진다는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선배님들처럼 전문적인 엔지니어가 되고 싶고, 더 나아가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경쟁력을 가진 회사에서는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발전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도록 겸손한 자세로 항상 배운다는 마음이 집을 지니고 있겠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것이 많지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며 폴리미래가 인정하는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적용해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탁월한 생산성을 가진 사업장을 만들겠습니다.



📍 이윤한 주임

폴리미래가 이끄는 미래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폴리미래 기술팀 신입 사원 이윤한 주임입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전 경험했던 석유화학단지에서의 업무는 석유화학이라는 산업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됐는지를 느끼게 해주었고, 고분자공학과에 진학하면서 좀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대학교 4학년, 소문으로 들려오는 취업 한파 소식과 넓어진 취업 분야로 인해 다른 산업이나 대학원으로의 진학을 고민했지만, 남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제 자신만의 선택을 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기업 분석으로 폴리미래에 대해 알게 됐고 1조 원 매출액을 단 180명의 인원으로 낼 수 있는, Specialty를 바탕으로 석유화학산업을 이끄는 선진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류 합격 당시 행복한 미래를 생각했지만, 인적성 시험과 1차 면접의 높은 경쟁률에 제가 180명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불확실한 미래에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입사하신 선배님들의 인터뷰와 《폴리마을》을 보며 준비한 결과,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 3개월 동안 많은 교육과 환영을 받았으며, 어색한 공정과 제품이지만 폴리미래만의 뛰어난 교육 시스템에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의 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은 만큼 부끄럽지 않은 폴리미래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세계 폴리프로필렌 시장의 성장 모델이 되도록

회사의 가치를 해외에 알리는
시장개발팀입니다!



회사 내에 젊은 에너지를 채우고 있는 우리 팀은 제품의 해외 시장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목표에 맞춰 시장을 파악하고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영업 전략을 세우는
시장개발팀의 파이팅 넘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시장개발팀(Market Development Team)은 세일즈 채널과 함께 폴리미래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높은 가치로 판매되도록 시장을 개발해 폴리미래의 가치를 올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영업의 두 세일즈 채널인 LyondellBasell, 대림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해외시장에서 폴리미래 제품의 판매를 늘리는 데 집중해 현재 40여 개 국가에 폴리미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장개발팀은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목표하는 시장 및 고객 조사, 제품의 용도 개발, 경쟁업체 파악 및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영업전략 수립 그리고 사업 확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유동적인 시장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세일즈 채널 및 글로벌 유통망과 유기적인 소통을 해야 하는 만큼 전 팀원이 원활한 제2외국어 능력과 함께 다양한 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Global Mindset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개발팀은 폴리미래가 전 세계 폴리프로필렌 시장에서 존경받을 수 있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먼저 시장의 변화에 반응하고 고객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장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시장이 요구하는 마스크용 멜트블로운(meltblown) PP 최대 판매와 급증하는 PCR 테스트 키트를 위한 사출용 PP 제품 판매 최대화 달성 등은 급변하는 시장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개발팀은 폴리미래에서 평균 나이가 가장 젊은 팀입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과 열정으로 파이팅 넘치게 일하고 있는 시장개발팀의 모든 구성원에게 열렬한 응원 및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장개발팀 구성원 소개

A. 강은혜 팀장

시장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나고 협상에 능통한 팀의 리더. 맛집과 라테를 사랑하는 따뜻한 도시 여자. **ISFJ**

B. 박종윤 차장

중국 및 유럽 시장 개발을 담당하는 시장 개발꾼. 특유의 유머와 부드러움을 겸비한 팀의 윤활 유 역할. **ESFJ**

C. 임채휘 과장

중국 및 아메리카 대륙 시장 개발을 담당하는 시장 개발꾼. 넘치는 친화력과 주옥 같은 멘트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팀의 인싸. **ENFP**

D. 심수연 주임

인도 아대륙, 중동 및 터키 시장 개발을 담당하는 시장 개발꾼. 주위를 환하고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팀의 마스코트. **ENFP**

E. 김대인 주임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대륙 시장 개발을 담당하는 시장 개발꾼. 팀에 새로움을 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팀의 막내. **ENFJ**

시장개발팀의 주요 이슈 및 향후 계획

시장개발팀은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세일즈 채널과 협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40여 개 국가의 시장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팀을 이끌었던 많은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이룬 대단한 업적이라 생각하고, 그 업적을 이어받아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던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어 선진 시장인 유럽, 아메리카 대륙 및 일본으로의 진출을 위해 강은혜 팀장을 필두로 전 팀원이 해당 시장 개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PP 시장이 하락세이고 하루가 다르게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어 시장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틈새시장 및 새로운 시장 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머지않아 폴리미래의 고부가가치 제품이 목표하는 유럽, 아메리카 대륙 및 일본 시장으로 안정적인 판매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023 APIC

Asia Petrochemical Industry Conference



폴리미래

미첼 킬린(Mitchell Killeen) 대표이사, 〈2023 APIC〉연설

미첼 킬린 대표이사는 지난 5월 18~19일 양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2023 APIC(Asia Petrochemical Industry Conference)> 개회식에서 한국석유화학협회장 대행으로 나서 연설을 진행했다.

미첼 킬린 대표이사는 개회식에서 아시아의 석유화학 회사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전략에 환경 관리를 통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의식이 우리의 시대정신을 규정할 것이며,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미첼 킬린 대표이사는 석유화학제품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도 필수적임을 강조했으며,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 순환 경제를 확립하고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저탄소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산업계의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 ★ ★ ★ 좋은 직장의 기준은 '경험'을 통해 찾게 됩니다

이진규 전무 CFO



안녕하세요, 폴리미래 가족 여러분!

폴리미래 재무·기획 담당 임원 이진규 전무입니다.

제가 폴리미래에 입사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이곳에서 적응하고 지금처럼 자리 잡기까지 도움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직업 특성상 이직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약 27년에 이르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새로운 곳에 적응하기 위해 매우 힘들고 긴장 되는 시간을 종종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처럼 따뜻하게 배려해 줘 안정적으로 새 직장생활을 이어간 적도 있지만 이리저리한 어려움을 겪은 적도 많았습니다. 이야기 서두부터 제 이직 경험을 꺼낸 이유는 지금도 많은 분이 낯선 직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여러분에게 사회생활을 좀 더 오래 해본 제가 몇 마디 도움이 될까 싶어 '좋은 직장의 기준은 뭘까?'에 대해 경험하며 깨달은 바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회계사로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KPMG 산동회계법인에서였습니다. 그곳도 우리 폴리미래처럼 직장 문화가 좋게 자리 잡은 곳이었습니다. 임직원 간 존중과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조직문화가 인상 깊었지요. 오래 몸담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IMF 금융 위기 때 부실 감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회사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 초창기의 5~6년간 열정을 다해 일했던 회사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후 PwC 삼일회계법인으로 이직했고 다시 얼마 후 EY 한영회계법인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는 동안 능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하던 시기도 있었고, 매우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경험을 하며 회계사로서의 제 커리어는 Deloitte 안진회계법인을 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임원으로 대형 건설사로 이직했을 때 좋은 기회가 찾아왔고,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거란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기준이 전부가 아니더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텃세와 국세청의 압류 조사 그리고 뒤이어 터진 분식회계 문제로 쉽지 않은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 시기는 많은 문제를 혼자 짊어진 채로 너무 외롭고 힘들게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이었던 거죠.

제가 첫 직장인 KPMG 산동회계법인을 그리워하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조직문화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중요성,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사랑했고 열정을 불태웠던 그곳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종종 생각합니다. 그때의 그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희로애락을 공유할 수 있었다면 일하는 것이 외롭고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필 이때부터 이직도 잦았습니다.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곳에서는 또다시 회사 사정상의 문제가 발생해 다른 계열 회사로 이동해야 했고, 뒷수습을 어느 정도 하고 나니 갑작스럽게 타사와의 합병이 발표돼 또다시 이직을 해야 했지요. 그렇게 DL Chemical에 합류하게 됐고, 2년 반가량 정신없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사세 확장으로 인수, 합병, 분할 등 많은 일이 일어났고, 설상가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원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제 히스토리를 장황하게 말씀드려 지루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거쳐 지금 저는 폴리미래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네요. 나름 길다면 길었던 직장생활을 통해 깨달은, 아주 간단하지만 적절한 때 도움이 될지 모를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건 '경험'이 좋은 직장을 찾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이란 각자에게 맞는 무언가가 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잘 맞는 곳이거나, 내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거나, 열과 성을 다해 청춘을 바칠 수 있는 곳이거나, 라는 생각은 경험을 해보면서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했다면 좋은 직장을 고르는 자기만의 기준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알려진 곳이라도 그곳이 모두에게 좋은 직장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복지가 잘돼 있는 곳이라 해도 불만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급여, 적성, 워라밸, 사람, 승진 등 판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기준은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직 후 다른 직장에서 뜻밖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씩 기준과 안목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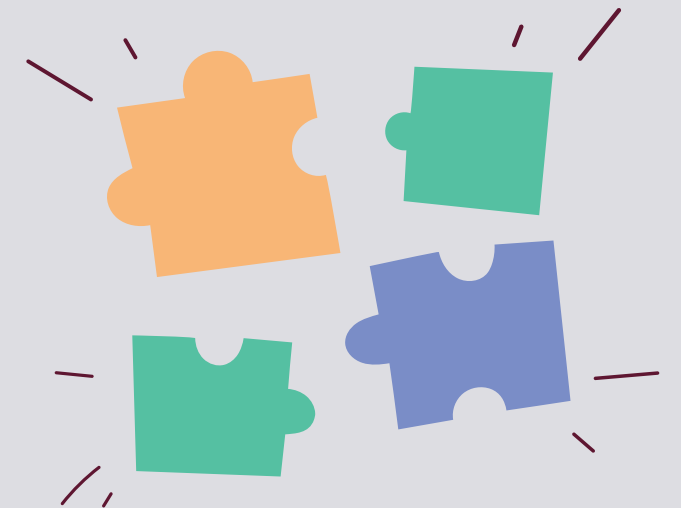
폴리미래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혹은 다른 곳을 거쳤더라도 현재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께 이곳은 훌륭한 조직문화와 팀워크를 갖춘 회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폴리미래처럼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회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조직의 저변에 깔려 있는 좋은 문화와 임직원 간의 유대감이 지금까지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폴리미래가 지속적으로 이익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직을 준비하고 있거나 새로운 직장에 대해 궁금할 때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한 번 던져보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직장이란 어떤 곳인가?’

앞으로도 폴리미래의 좋은 조직문화와 팀워크가 계속 이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폴리미래를 여러분의 힘으로 계속해서 일궈나가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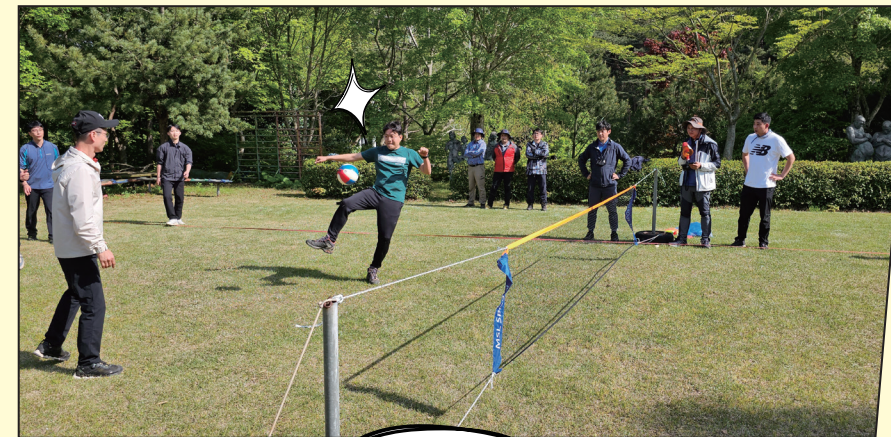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폴리미래 봄나들이, 보성 일림산 산행

지난 4월 27일, 폴리미래는 보성 일림산으로 봄 산행을 다녀왔다. CEO와 공장 직원들이 함께 산을 오르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열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성공적이고 안전한 Line3의 T/A(Turnaround)'를 위한 안전결의 행사였던 이번 산행은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진행되어 더욱 반갑고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오랜만에 직원들과 경영진이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기회였던 이번 행사에서 미첼 킬린 대표이사는 어려운 경영환경이지만 그 속에서도 안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모두에게 당부했다.



News Briefing + PolyMirae

2023 Summer

2022년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 체결식

2022년 12월 21일, 서울 본사에서 2022년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 체결식이 진행됐다. 정원희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노동조합 집행부와 회사를 대표해 김방현 전 대표이사, 윤기엽 공장장, 인사노사협력팀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 타결안에 대해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 체결식에서 김방현 전 대표이사는 2022년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이 노사 간의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노사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은 지난 7월 2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약 5개월에 걸쳐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건전한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인사노사협력팀 황상호 차장

2022 폴리미래 워크숍

폴리미래는 지난 12월 16일, 천안에서 주니어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김방현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약 50명의 주니어 직원들이 참가했으며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관계 구축 및 조직력 강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김방현 전 대표이사는 ‘팀워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직원 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폴리미래는 ‘One Winning Team’ 정신을 바탕으로 구성원 간의 우수한 팀워크 구축을 위한 조직력 강화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인사노사협력팀 이동준 주임



PlastIndia 2023 참석

지난 2월 1~5일 인도 뉴델리에서 국제 플라스틱 박람회 <PlastIndia 2023>이 개최됐다.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이 박람회는 플라스틱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성장을 목표로 하는 행사로, 코로나19 악화에 따라 지난 행사가 연기됐던 만큼,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많은 업체가 참가해 순조롭게 진행됐다. 인도를 포함한 각국 관련 기업의 플라스틱에 관한 솔루션과 진보된 제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당사는 이번 행사에서 폴리미래의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을 홍보함과 동시에 LyondellBasell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스페셜티 제품군 ‘Soft Spunbond(소프트 스펠본드), Metallocene Meltblown(메토센 멜트블로운), Advanced compound(고기능성 컴파운드)’ 등 경쟁력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소개했다. 폴리미래는 이번 박람회를 필두로 다양한 미팅 및 전시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폴리미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할 예정이다.

시장개발팀 심수연 주임

2022년 통합내부감사 실시

폴리미래는 2022년 12월 6~16일 9일간 통합내부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기존의 PSM(Process Safety Management)/SMS(Safety Management System)/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RC(Responsible Care) 통합내부감사에 ‘중대재해 처벌법(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과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을 추가해 시행했으며, 총 9명의 내부 심사원이 당사의 모든 절차와 시스템부터 현장 설비에 이르기까지 안전과 연관된 설비의 점검과 회사의 절차 및 규정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했다.

점검 결과 별도의 부적합 사항 없이 일부 개선 및 관찰 사항만 발견돼 우수한 안전관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해 경영진을 중심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높은 수준의 안전 요구사항을 적용시키고 발전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현장이 깨끗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직원이 부단히 노력하고 협력하여 이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통합내부감사는 LyondellBasell의 요구사항을 적용해 회사의 31개 내부 절차 기준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폴리미래는 전사의 안전 환경 보건 시스템을 확인하고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 없는 폴리미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안전환경팀 정준호 과장

KOTRA 주관 ‘제17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참가

폴리미래는 2022년 11월 14~15일 이틀간 우수 인력 채용을 위해 KOTRA 주관으로 열린 ‘제17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채용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행사 첫날인 14일에는 인사노사협력팀 이정균 팀장이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채용 설명회를 진행했다. 폴리미래는 미래 지속 가능 성장의 원동력인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사무실을 떠나 직접 대학교 캠퍼스와 채용박람회 현장을 찾아 채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대학생, 구직자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회사의 강점을 소개하고 향후 비전을 제시하는 등 우수한 예비 폴리미래인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인사노사협력팀 이동준 주임



INDEX 2023 참석

폴리미래는 지난 4월 18~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NDEX 2023>에 참석했다. <INDEX>는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부직포(Non-Woven) 전시회로, 올해는 600개 이상의 업체가 부스를 열어 코로나19로 제약받았던 교류를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40개 이상 국가의 부직포 관련 회사가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관련 산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당사는 이번 전시 기간 동안 30개 이상의 기존 고객, 잠재 고객과 미팅을 갖고 폴리미래의 고급화된 Meltblown(멜트블로운)과 Spunbond(스핀본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새로운 판매 기회를 모색할 수 있었다.

시장개발팀 강은혜 팀장



News Briefing + PolyMirae

2023 Summer

무재해 4000일 달성

폴리미래는 지난 3월 19일부로 무재해 4000일이라는 뜻깊은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헌신과 경영진의 적극적인 안전 환경 개선 활동 지원에 따른 폴리미래 임직원 모두의 결실이다. 2022년 10월, 23일간의 여천 공장 대정비 작업을 안전하게 마쳤기에 그 기록이 더욱 빛난다. ‘안전제일’을 지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직원과 여타 작업자 모두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망설임 없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안전 문화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안전이 당연한 습관이 되고 문화로 자리 잡게 될 때 안전한 일터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2023년에도 ‘안전제일’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임직원 모두가 안전 문화 실현을 통해 무재해기록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안전환경팀 정태형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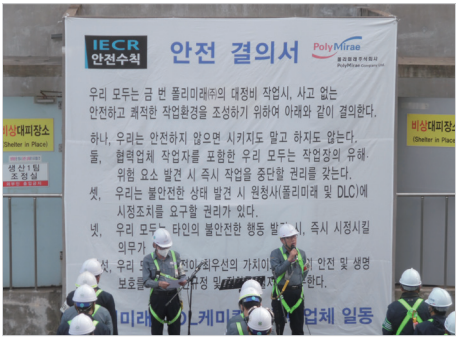
생산 1팀 정기 보수 완료

폴리미래 여천 공장(1&2라인)은 지난 2022년 10월 12일부터 11월 5일까지 24일간 정기보수(Turnaround) 작업을 시행했다. 정기보수 시작 전 폴리미래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기보수기간 동안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전기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후화된 모든 설비를 교체하였으며 MCC(Motor Control Center) unit, SWGR(Switch Gear) 및 Transformer 등 주요설비를 전면 교체하였다. 비상발전시스템인 DEG(Diesel Engine Generator)도 최신 제품으로 교체하여 비상전원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대기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THC(Total Hydrocarbon) 저감 설비인 Active Carbon 주입설비를 설치하였으며, 공장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기존에 운영중인 2기의 CCTV 연동 원격 자동 물 소화설비(Remote Control Monitor)에 1기를 더 추가하여 전 공장의 어느 곳이라도 화재 발생시 신속한 원격 소화 가능한 소화 설비를 갖추게 되었다.

금번 생산1팀의 정기보수작업은 철저한 작업 계획 및 안전한 작업 수행으로 단 하나의 사소한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정기보수기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안전환경팀, 공무·공정 및 타 생산팀들의 노력이 정기보수작업을 안전하게 마치는 데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다.

생산 1팀 하용우 과장



2022 Basell International Trading 마케팅 회의

폴리미래는 지난 1월 9일, BIT(Basell International Trading)와 마케팅 회의를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해왔던 회의는 코로나19가 완화되며 BIT 담당자와 대면 미팅으로 진행됐다.

BIT는 해외 판매 채널로서 인도, 서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터키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이 회의를 통해 비즈니스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같이 하고 향후 시장 동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춘 발 빠른 판매 계획 수립을 위해 각 나라 실무진과 함께 지역별 시장 개발 방향, 물량 확대 및 제품 홍보를 위한 계획을 공유했다. 더불어 두 회사 모두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대면 회의를 발판으로 양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판매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폴리미래와 BIT는 향후 지속적인 마케팅 회의를 통해 밀접한 논의를 진행하고 시장 방향에 맞는 제품 개발 및 지속 가능한 제품 프로모션 정보 교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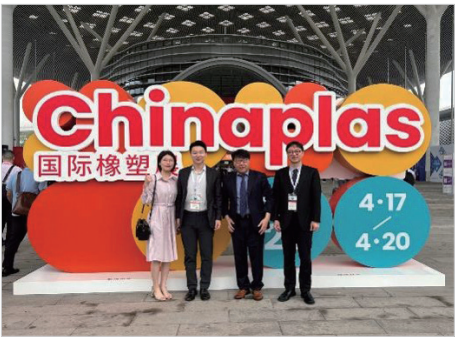
시장개발팀 심수연 주임



Chinaplas 2023 참관

아시아 최대 규모의 화학산업 전시회인 <Chinaplas 2023>이 지난 4월 17~20일 중국 선전에서 개최됐다. 독일 BASF, 미국 ExxonMobil 같은 글로벌 화학기업들 비롯해 약 3900개 업체가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봉쇄 조치 이후 처음 열린 행사였기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전시회 기간 동안 총 24만 8222명이 행사장을 방문했으며, 이 중 해외 방문자는 11.5%였다. 이번 전시회 주제는 ‘A Brighter and Shared Future, Powered by Innovation (혁신으로 움직이는 더 밝고 공유된 미래)’로 주요 화학 기업들은 플라스틱 산업의 종합 재활용 기술 및 PCR 등 재활용 제품, 이차전지를 비롯한 전기차 부품 소재, 식품 및 음료 포장에 들어가는 고성능 다기능 소재 등을 선보였다. 폴리미래는 당사의 수출 채널인 BAP(Basell Asia Pacific), ㈜대림과 함께 20여 개 이상의 고객사를 만나 현재 진행 중인 비즈니스 현안을 논의하며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당사의 주요 세그먼트인 PP 부직포 고객사를 BAP 부스로 초대해 부직포용 제품과 용도 개발 사례를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고객 미팅과 세미나를 통해 당사는 수출 채널 및 고객사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으며, 이외의 비즈니스 기회까지 발굴할 수 있었다.



기술팀 정상호 차장

News Briefing + PolyMirae

2023 Summer

Basell Asia Pacific 마케팅 회의

폴리미래는 지난 3월 8일 홍콩에서 BAP(Basell Asia Pacific)팀과 마케팅 회의를 진행했다. 폴리미래는 중국 및 남동아시아 지역 제품 수출을 담당하는 구매 채널인 BAP와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BAP 마케팅 회의는 영업, 마케팅 및 기술 팀이 참여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예측하고, 가장 효과적이면서 최고의 Value를 내기 위한 판매 전략을 구축했다. 특히 코로나19, 세계적 인플레이션 등에 의해 어려워진 시장상황 속에서도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고 폴리미래의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제품 분야별, 애플리케이션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폴리미래와 BAP는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 급변하는 시장상황에서 효과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도록 지속적인 마케팅 회의를 진행할 것이다.

시장개발팀 김대인 주임



2022년 하반기 전사 위기 대응 훈련

폴리미래는 2022년 11월 29일, 평여 공장에서 하반기 전사 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폴리미래는 매년 ‘안전의 날(Global Safety Day)’ 행사 시 본사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전사 위기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왔으며, 2022년부터는 그 훈련 강화를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동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훈련은 현장 대응 훈련(상황 단계별 조치 및 임무 수행), 대관 대응 훈련(초기 사고 조사 대응), 언론 대응 훈련(사고 내용 발표, 회사 대응)으로 구성, 실시했다. 폴리미래는 연 2회의 정기적 전사 위기 대응 훈련을 통해 공장에서의 각종 사고 시나리오 대응 및 직원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안전환경팀 박철 과장



인사동정

승진	입사	부서이동
2023. 1. 1.부 전무 정승호	2023. 3. 6.부 경력직 재무팀 박기호	2022. 11. 14.부 시장개발팀 김대인
2023. 4. 1.부 1급(갑) 사원(부장)으로 승진 박재하, 박철민, 장문영	2023. 3. 16.부 신입 엔지니어 김강욱, 김지윤 기술팀 이윤한	2023. 1. 1.부 내수영업팀 김학상 기술팀 정상호 물류관리팀 오상록 생산2팀 이동준 인사노사협력팀 김정호
1급(을) 사원(차장)으로 승진 박재성, 이승욱, 이정균	2023. 6. 1.부 경력직 구매팀 김윤현	2023. 3. 1.부 사업자산관리팀 김승현 생산3팀 정재근 시장개발팀 임채휘
2급 사원(과장)으로 승진 임승준	2023. 6. 23.부 경력직 재무팀 마진수	
3급 사원(대리)으로 승진 명수은, 유승범, 이동준, 임종석	복직	2023. 3. 6.부 생산3팀 위경재
4급(갑) 사원(주임)으로 승진 김상배, 김희진, 모효길, 안대권, 이용하, 이재문, 이태양, 함수형	2023. 1. 1.부 이길중 상무(파견 후 복귀)	2023. 4. 1.부 지속성장팀 박정희 구매팀 임승준 기술팀 김권호
4급(을) 사원으로 승진 유지연	2023. 2. 20.부 사업자산관리팀 김승현 (육아휴직 후 복귀)	2023. 6. 1.부 물류관리팀 권진홍 안전환경팀 정현묵
5급(갑) 사원으로 승진 김성조, 석채훈, 장홍준, 조지성, 최지호	보직변경	2023. 6. 21.부 생산2팀 김강욱 안전환경팀 김지윤 기술팀 이윤한
정년퇴직	2023. 1. 1.부 팀장임명 기술팀 하구열 물류관리팀 신준식 지속성장팀 박철민 인사노사협력팀 이정균	육아휴직
2022. 12. 31.부 생산1팀 안중필 생산2팀 백정선, 이옥식	조업과장 임명 생산2팀 황호인	2023. 7. 1.부 안전환경팀 정준호
2023. 6. 30.부 물류팀 정종열 생산1팀 김기신 생산3팀 공성만		



생성 AI 전성시대, ChatGPT가 자소서를 써준다고?

2022년 11월 30일 OpenAI사의 ChatGPT가 세상에 나오고 5일이 지나 가입자가 100만 명에 달하더니 2개월이 지나자 월간 활성 사용자(MAU, Monthly Active Users)가 1억 명을 돌파하며 상상을 초월할 속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관련 뉴스와 칼럼들이 매체를 장식한다. ChatGPT가 자소서나 논문, 심지어 소설까지 썼다는 기사에 놀라기 무섭게 이미 사람들은 이 신문물을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기 시작했다. 대체 ChatGPT가 뭐길래?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AI에 관한 기대와 의구심은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다. AI가 인간 사회에 미칠 영향에 관해 말이다. 인류를 이롭게 하고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이라면 언제든 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우아한형제들’ 하이퍼로컬서비스팀 송요창 프로그래머

#ChatGPT? 그게 뭔데?

ChatGPT는 Chat과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GPT)의 합성어다. 방대한 데이터를 미리 학습해(Pre-trained) 이를 문장으로 생성(Generative)하는 ‘생성 AI’다. ‘채팅’의 Chat에서 눈치 챘듯 채팅창에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문장형으로 답을 해준다. 단지 채팅만 하면 되니 사용 방법도 간단하다. OpenAI사의 ChatGPT(chat.OpenAI.com) 사이트에 접속한 뒤 OpenAI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채팅창이 나온다. 이제 질문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에 대해 쉬운 설명을 원한다면 “메타버스에 대해서 초등학교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라고 입력한다. 그러면 즉시 상세한 답변이 생성된다.

#생성 AI는 이미 곳곳에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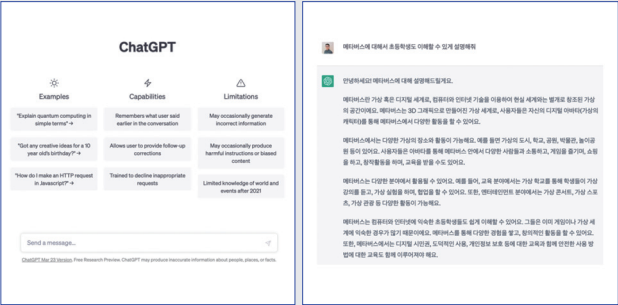
매달 고객사에 정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작성해 발송하는 수연 님(가명). 이런 일이 몇 건 정도면 간단하지만 100여 개 고객사를 대상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인터넷에서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활용해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런데 이상하다. 분명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계속 오류가 발생해서 처리가 안 된다. 수연 님은 같은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수연 님처럼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귀찮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꼭 해야 하는 일들이 하나쯤 있다. 이럴 때 보통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알 만한 사람에게 물어봐 해결하려 해도 정확히 일치하는 케이스를 찾기란 쉽지 않다. 설령 찾았다 해도 뭔가 복잡하게 꼬이는 수가 많다. 예를 들어 한 번도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다뤄보지 않은 프로그래머가 첨부파일을 포함한 이메일을 보내는 코드를 작성하려면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Software Development Kit)와 한참을 씨름해야 한다. 잘 풀리면 수분 안에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몇 시간, 며칠이 걸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때 ChatGPT에게 질문을 하면 어떨까?

공식 문서를 잠깐 살펴보고 ChatGPT를 활용했더니 순식간에 코드를 작성해줬다. 질문을 두 차례 더 해서 필요한 코드를 얻어냈는데 답변을 읽고 코드를 확인하는 시간까지 포함해 넉넉잡아 5분도 안 된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코드를 다루는 프로그래머들만 ChatGPT의 도움을 받고 있을까? 2023년 2월 27일 자 ITWorld의 기사를 보자.

“ChatGPT로 자소서 쓰니... 78%, 서류 합격했다”

이달 초 레주메 빌더(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2153명의 구직자 가운데 거의 절반이 이력서, 자기소개서 또는 둘 다를 작성하는 데 ‘ChatGPT’를 썼으며, 대부분은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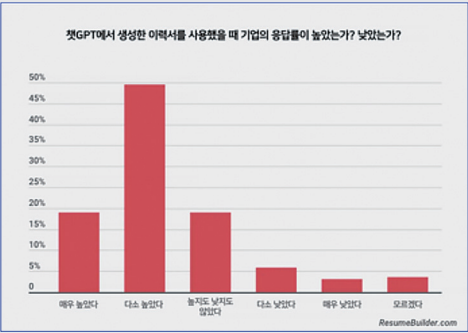
기사 출처: www.itworld.co.kr/news/279475



이미지 출처: chat.OpenAI.com



구직할 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쓰는 일은 여간 고역이 아니다. 그런데 이때 생성 AI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심지어 합격률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물론 이는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고 앞으로 꼭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미지 출처: www.itworld.co.kr/news/279475

나의 경우도 실제로 여러 번 도움을 받았다.

한 번은 예약한 해외 호텔에 예약 내용 변경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영어로 작성해야 할 일이 있었다. 객실을 2개 예약했는데 클럽 라운지 이용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고 싶었다. 사무적인 이메일은 부담되기 마련이라 늘 고민이 된다. 평소 같았으면 한글로 본문을 만들고 번역기를 돌려서 보냈겠지만, ChatGPT를 사용해봤다. 요구사항을 말하고 영문 이메일 형식으로 작성해달라고 하니 빠르고 명쾌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편리할 수가!

나는 매주 30분 정도 분량의 팟캐스트 대본 작업을 하고 있다. 짧은 글쓰기지만 2시간 이상 걸린다. 매주 이 정도 시간을 쓰고 팟캐스트 녹음하고 편집할 생각을 하면 아찔하다. 그래서 ChatGPT를 활용해 봤다. 활용 방법은 간단하다. 전에 블로그에 써둔 글을 골라서 이를 바탕으로 팟캐스트 대본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이렇게 맡기면 1분도 안 걸려 대본을 작성해준다. 직접 작성한 대본보다 구성이 매끄러워서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초안을 작성하고 여기에 살을 붙여 대본을 완성했다.

생성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프로그래밍과 글쓰기에만 국한될까? 2021년 OpenAI사에서 선보인 DALL·E나 Stable Diffusion, Midjourney 같은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웹툰을 그리기도 하고, 가상의 모델을 만들어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기도 한다.

2022년 8월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 디지털아트 부문 1위를 수상한 작품인 <Théâtre D’opéra Spatial>은 생성 AI인 Midjourney를 활용한 일이 밝혀져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오피스365 제품군에 Copilot 기능을 대대적으로 반영하면서 업무 영역에서도 혁신이 기대된다. 이를테면 화상회의를 진행하면 회의록을 대신 작성해주기도 하고,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긴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를 요약해주기도 한다. 이메일 내용 중에 중요한 사안을 선별해서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이미 작성한 스프레드시트와 문서를 확인해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손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생성 AI와 함께 일하며 배우는 시대로의 전환

생성 AI는 사람이 일하고 학습하는 데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더 가속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 생성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까? 먼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과거를 돌아켜보면 분명 변화를 가져오리라 생각한다.

2016년 작 영화 <히든 피겨스(Hidden Figures)>를 보면 1960년대에 미국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머큐리계획의 숨은 공신들이 나온다. 그 중 도로서 본은 흑인이어서 주임 자리를 맡을 수 없는 처지다. NASA에 IBM이 들어오면서 계산원인 흑인 여성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다. 그런데 아무도 IBM 컴퓨터를 쓸 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독학으로 IBM 7090과 포트란(프로그래밍언어)을 공부한 뒤 IBM 담당자, 즉 프로그래머가 된다. 그 이후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우리 삶 전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컴퓨터가 세상에 나온 뒤 사람의 생산성은 높아졌다. 초기에 이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인정받았다면 지금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요구받는 시대다. 생성 AI도 비슷한 흐름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 생성 AI를 잘 쓰려면 좋은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생겨났고, 이를 잘하는 사람을 찾는 단계인 걸 보면 이제 시작이다.

잘 모르는 프로그래밍언어나 소프트웨어 개발도구도 더 적은 시간을 들여 손쉽게 배울 수 있게 됐다. 작성한 코드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할 수 있고, 유지 보수하기에 더 나은 형태로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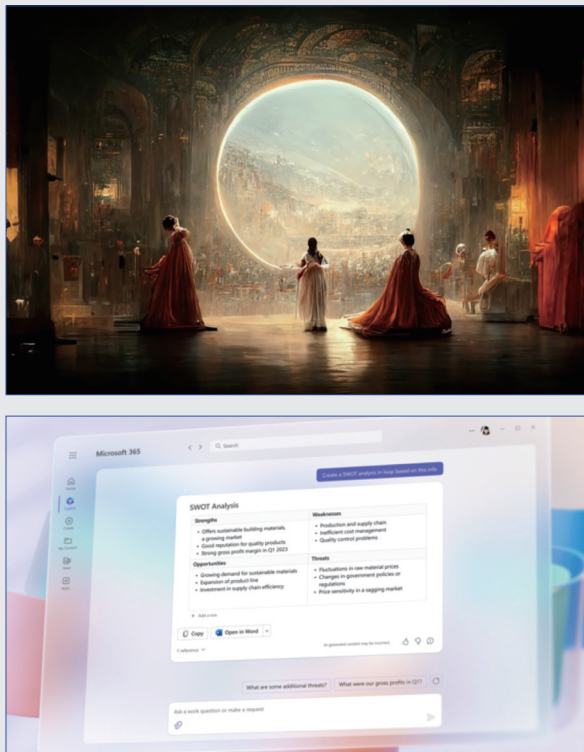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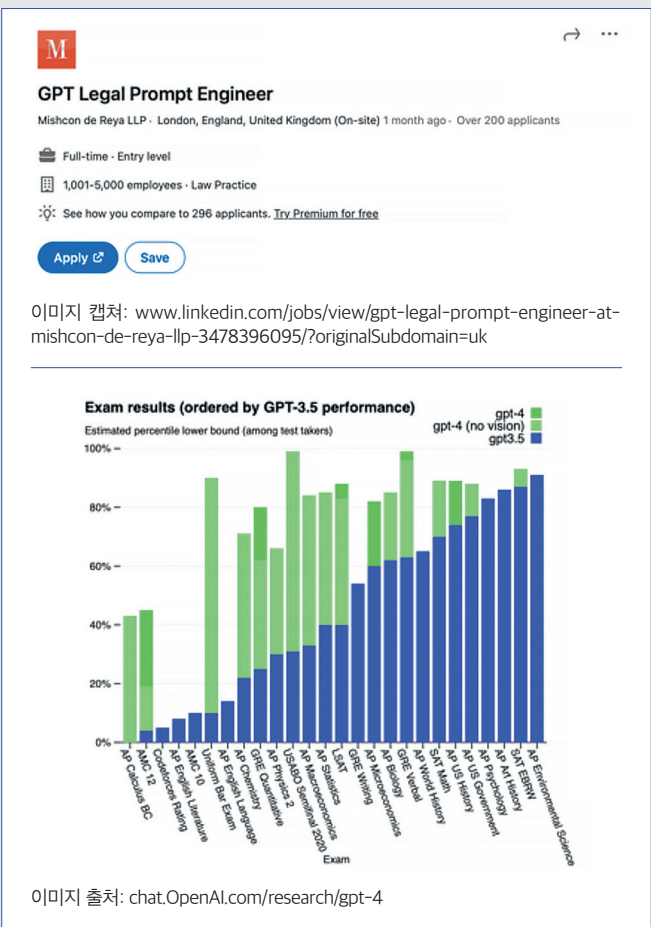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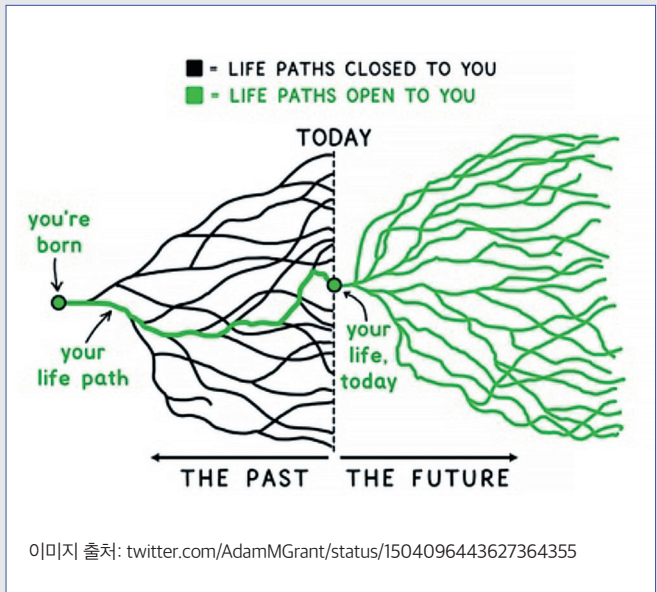
ChatGPT 봇, 미국 로스쿨 시험 통과

기사 출처: scimonitors.com/chatgpt-봇-미국-로스쿨-시험-통과/

학습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예를 들어 화상영어나 학습 앱 대신 이제는 ChatGPT를 24시간 대화가 가능한 튜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도 그럴 것이 ChatGPT의 시험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미국 로스쿨 시험과 변호사 시험도 합격점을 받았고 MBA도 정복했다.

#정체성은 문명이 아니라 선택이다

《싱크 어게인(Think Again)》의 저자이며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 스쿨 교수인 애덤 그랜트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미지 출처 및 공고:
aicomics.co.kr/artwork/5

www.nytimes.com/2022/09/02/technology/ai-artificial-intelligence-artists.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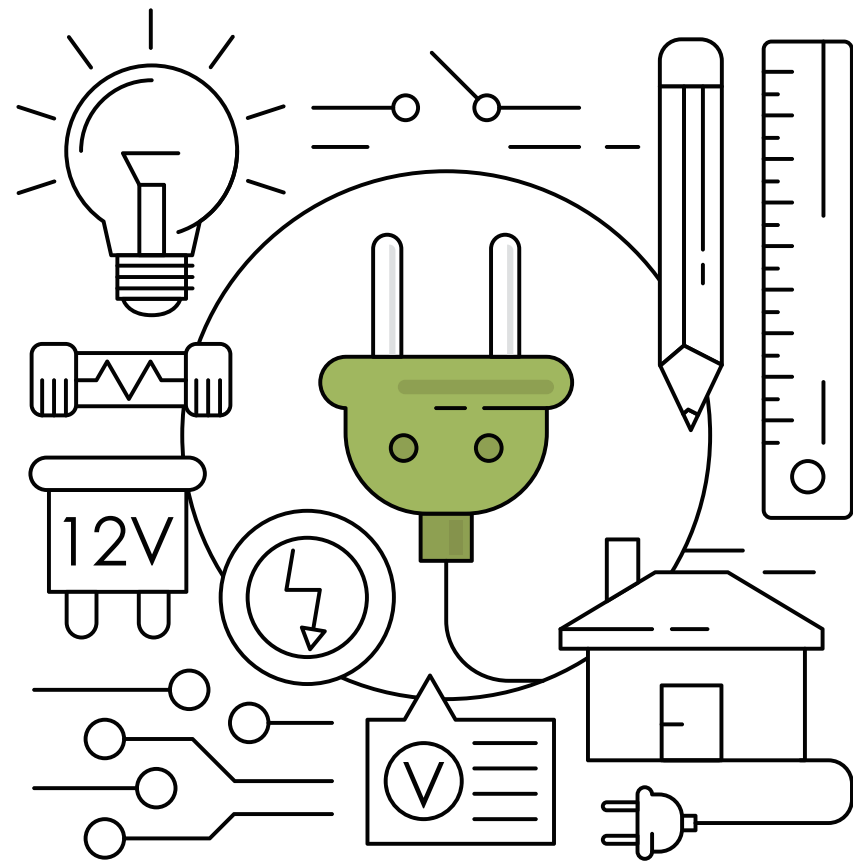
[blogs.microsoft.com/
blog/2023/03/16/introducing-
microsoft-365-copilot-your-copilot-
for-work](https://blogs.microsoft.com/blog/2023/03/16/introducing-microsoft-365-copilot-your-copilot-for-work)

에너지 쇼크 시대, 관리비 절약 꿀팁은?

“이거 맞아요?” 고지서에 난방비, 전기 요금 ‘폭탄’
“전기·가스 요금, 폭탄 고지서 어쩌나...” 1년 새 28% 이상 상승

급격히 오른 관리비로 집집마다 비명을 지른다.
올여름 전기요금은 또 어쩌나, 에어컨은 제대로 틀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에너지 요금 폭탄에 맞서 관리비를 효과적으로 아끼는 방법이 절실하다.

《헤럴드경제》 정경수 기자



지난해 말부터 이런 헤드라인이 신문 1면을 장식했다. “대체 얼마나 나왔길래 이렇게 난리법석인 거야?” 하며 뒤늦게 앱을 켜봤을 땐 이미 늦은 시점이었다. 각종 생활 요금을 모두 자동이체로 결제하다 보니 체감하지 못한 탓이다. 지난해 겨울 2인으로 구성된 우리 집 가스 요금이 약 2배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가스 요금은 6만 5760원으로 2021년 12월 요금(2만 9200원) 대비 125% 증가했다. 같은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올해 1월 역시 62%, 2월 17%, 3월 60%로 늘었다. 사용량은 지난해와 대동소이했지만 ‘요금 폭탄’은 피하지 못했다. 심지어 올해 3월에는 급등한 난방비에 깜짝 놀라 보일러를 거의 끄고 살아 사용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비용은 크게 증가했다.

물론 주변의 극단적인 사례에 비하면 많이 나온 축에도 끼지 못한다. 주택에 살거나 4~5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 가스 요금이 3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나름 에너지절약에 자신 있다고 자부했던 터라 충격은 컸다. 고물가 시대에 그 정도 노력으로는 부족했다. 월급이 제자리걸음인 상태에선 적극적인 비용 관리에 들어가야 했다. 특히 지난해 겨울의 비용 상승은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한다. 본격적인 물가 인상 여파는 올해 여름부터 체감될 전망이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 적자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며 각종 생활 요금 인상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올여름 ‘냉방비 폭탄’과 올겨울 ‘난방비 폭탄 시즌 2’를 피하기 위한 팁을 정리했다.

① 앱테크, ‘가스앱’ 활용

약간의 품만 들이면 가스 요금을 월 1000원가량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가스 요금은 통상 도시가스 검침원이 매달 현관문 밖에 있는 원격지시부를 통해(주택이나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 중 원격지시부가 없는 곳은 예외로 하고) 사용량을 체크한 뒤 비용은 지로로 청구하고 있다. 앱스토어에서 ‘가스앱’을 내려받아 이러한 작업을 스스로 해보길 추천한다. 매달 정해진 기간에 스스로 계량기를 촬영해서 업로드하면 자가검침이 완료된다. 자동이체 신청은 물론 모바일 청구서 수령, 챗봇 쿼즈 참여, 광고 보기 등을 하면 매달 1000원가량을 포인트로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모은 포인트는 10원만 있어도 다음 달 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② 생활 요금 할인, ‘쓸쓸한 카드’

도시가스 요금과 아파트관리비는 매달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편하다. 이때 이왕이면 할인 혜택을 챙겨주는 신용카드와 연계해두는 게 좋다. 5~10%씩 할인을 받으면서 카드 앱으로 관리비 청구서도 잊지 않고 받아볼 수 있다.

▷생활 요금 정기 결제 시 10% 할인해주는 ‘삼성 iD 달달할인 카드’ ▷아파트관리비, 편의점, 배달 앱 중 하나를 선택해 결제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KB국민카드 Easy shopping카드’, ▷전기·도시가스 요금 자동이체 시 월 최대 1만 원까지 할인해주는 ‘신한카드 Mr.Life’, ▷아파트관리비에 대해 월 최대 5000머니를 적립해주는 ‘1Q Daily+ 하나카드’ 등이 대표적이다.



‘가스앱’을 통해 할인받은 포인트 금액

③ 놓치지 마세요! 각종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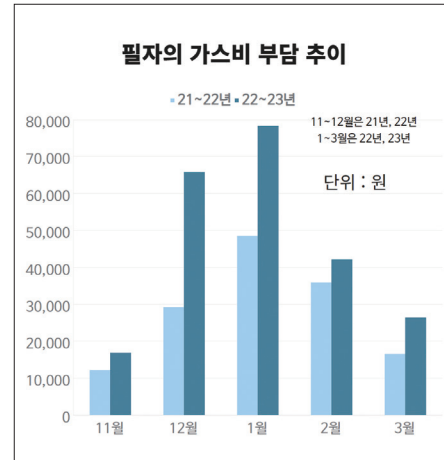
한국전력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례는 출산 가구다.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는 신청일로부터 전기료의 30%, 월 최대 1만 6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아이가 36개월이 되면 자동 해지되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 '지역번호+123'을 눌러서 한국전력공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 외에 5인 이상 가구인 대가족과 3자녀 이상 가구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등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한다.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5% 이상 절감(탄소배출량 기준)하면 최대 5만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④ “내가 나를 몰랐다”, 꼼꼼한 고지서 분석

매달 날아오는 전기·가스 요금 고지서나 아파트관리비 내역서. 납부해야 할 총금액만 확인하고 쓰레기통으로 곧장 버리는 경우가 많다. 생활 요금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 피해야 하는 행동이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요금 고지서를 살펴보면 전년 동월/전월 대비 증감액,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동일 면적의 평균 사용 금액 등 정보가 담겨 있다. 비용 세부 항목별로도 증감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챙겨보지 않는다면 우리 집 생활 요금이 많이 나온 것인지 적게 나온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 많이 나온 것 같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체크해야 다음 달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지로 고지서를 챙겨보기 힘들다면 '아파트아이', '가스앱', 신용카드 앱 등을 설치해 모바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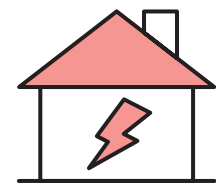
필자의 가스비 부담 추이

⑤ 티끌 모아 티끌? 무심코 지나가는 비용

아파트관리비 내역서는 약 20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TV 수신료는 물론이고 금액이 많지 않은 요금(집마다 다르겠지만 필자의 경우 수도 요금이 이에 해당) 등은 무심코 지나가기 일쑤다. 그럴수록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TV 수신료의 경우 가정에 TV 한 대만 있어도 매달 2500원씩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넷플릭스 등 OTT만 시청한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다. 1인 가구인 경우 굳이 TV를 사지 않고 태블릿PC나 빔프로젝터 등을 활용하면 돈도 아끼고 실내 공간도 잘 활용할 수 있다. 매달 2500원씩 아끼면, 1년이면 3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수도 요금도 약간의 습관만 익힌다면 우유 한 통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생긴다. 예를 들어 세탁기를 돌릴 때 행굼 횟수가 과하면 옷에 세제 찌꺼기가 남아 있을 확률이 높다. 일상 세탁물이라면 세제를 적당량만 사용하고 행굼 횟수도 1~2회로 설정하도록 한다.



⑥ 결국 근본 해법은 Off!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할인, 절약 팁을 정리했다. 하지만 부족하다.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근본 해법은 결국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다.

TV는 모니터를 꺼도 플러그를 빼지 않는 한 일정량의 대기전력이 소비된다. 전원을 완전히 차단해 대기 전력으로 빠져나가는 전력을 줄이길 추천한다. 모니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TV 볼륨을 20% 줄이면 한 달에 0.8kWh의 전력을 줄일 수 있다.

IP TV 등에 활용하는 셋톱박스는 소비전력이 높은 제품이다. TV와 함께 대기전력을 차단하길 권장한다. 세탁기 사용 시 찬물을 사용한다. 물 온도를 40℃로 설정했을 때보다 에너지가 3분의 1 정도 절감된다. 절약 모드를 이용하고 탈수는 5분 이내로 하면 좋다. 세탁기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세탁물 양을 줄이는 것보다 동작 횟수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세탁물을 최대한 모아서 세탁기를 돌리도록 한다.

냉장고는 가전제품 중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품목이다. 이미 가지고 있는 냉장고의 부피를 줄일 수는 없으니 냉장고에 60% 정도의 내용물을 채워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를 권한다. 내용물 양이 이보다 10% 증가하면 전력 소비량이 약 3% 정도 증가하니 적정량의 음식을 보관해야 한다.

전기밥솥 대신 압력밥솥을 써도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다. 남은 밥은 얼려뒀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된다.

난방은 설정이 중요하다. 외출 시 보일러를 아예 끄는 것보다 원하는 실내 온도보다 2~3℃ 낮게 설정해두는 것이 좋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재가동 시 많은 가스나 전기를 소모하게 돼 오히려 과다한 난방비가 나올 수 있다. 보일러 설정은 온돌 대신 실온을 선택하고 전기장판처럼 상대적으로 난방 요금이 적게 드는 전기제품을 같이 쓰길 권한다. 이때 수면 양말과 실내화 신기, 내복 입기 등은 필수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 상승기다. 아파트관리비는 더 이상 푼돈이 아니다. 이제는 '제2의 월세'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우리가 유심히 챙겨봐야 하는 대상이다. 나도 모르게 새는 비용을 막아 팍팍한 삶이 조금이라도 넉넉해질지 희망한다.



세월이 쌓인 명작, 짜릿한 뮤지컬, 새로운 경험의 미디어아트
**바쁜 일상에 하루의 여유를 선사할
 문화계 소식을 전합니다!**

어느덧 초록으로 뒤덮인 여름이 찾아왔다.
 바쁘게 보낸 상반기를 지나 몸도 마음도 휴식이 필요한 계절.
 좋은 전시, 생생한 공연 한 편을 관람하며 내 안의 감성을 자극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단 하루, 아니 몇 시간의 문화 충전만으로도 일상이 새로운 활력으로 채워진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에도 더할 나위 없고, 연인·친구·가족과 함께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하루를 보내기에도 좋은 선택일 것이다.



Exhibit

《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

Edward Hopper: From City to Coast

서울시립미술관(SeMA)은 해외 유수의 미술 기관과 협력해 세계적 명화를 소개하는 ‘해외 소장품 걸작전’의 일환으로 〈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Edward Hopper: From City to Coast)〉전을 개최한다. 서울시립미술관과 뉴욕휘트니미술관이 공동 기획한 작가의 첫 국내 개인전이다.

에드워드 호퍼(1882~1967년)는 20세기 초 현대인이 마주한 일상과 정서를 독자적인 시각으로 화폭에 담아낸 대표적인 현대미술 작가이다. 시공을 초월하는 예술성을 지닌 그의 작품은 오늘날까지 미술을 포함한 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세계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본 전시에서는 그의 전 생애에 걸친 드로잉, 판화, 유화, 수채화 등 작품과 산본 호퍼 아카이브(Sanborn Hopper Archive)의 자료 270여 점을 7개 섹션으로 나눠 선보인다.

파리, 뉴욕, 뉴잉글랜드 일대, 케이프코드 등 작품 속에 작가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장소를 따라, 도시의 일상에서 자연으로 회귀를 거듭하며 예술적 지평을 넓혀간 호퍼의 65년에 이르는 화업을 돌아본다. 전시 제목 중 ‘길 위에서’는 호퍼가 그 장소로 향하는 길이자, 그곳에서 호퍼다운 화법을 전개하고, 각각이 이어져 독보적인 예술이 되어가는 모습, 나아가 그 길 위에서 우리가 호퍼를 조우하는 순간을 상징한다. 여러 장소에 대한 특유의 감수성을 바탕으로 섬세한 관찰에 자신만의 기억과 상상력을 더한 그의 작품이 여러모로 지친 우리에게 공감과 위안을 주기를 기대한다.



♥ Poly's pick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돼간다는 느낌입니다.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당신도 잘 알겠지요.”

_에드워드 호퍼

- 기간 : 2023. 4. 20.~8. 20.
- 시간 : 화~금요일 10:00~20:00, 주말 및 공휴일 10:00~19:00, 매월 마지막 수요일 10:00~22:00/월요일 휴관
-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전 층



Exhibit

《백희나 그림책》

그림책 《알사탕》 작가 백희나의 첫 단독 개인전이 열린다.

예술의전당이 전관 개관 30주년을 맞이해 마련한 이번 전시에서는 2003년에 발간된 《구름빵》을 포함해 《달 사베트》, 《장수탕 선녀님》, 《알사탕》, 《연이와 버들도령》에 이르기까지 작품의 원화와 입체 모형 등을 선보여 그림책 속 캐릭터와 공간을 실제로 체험하고 감상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백희나 그림책의 예술성과 서정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세계가 알아주는’ K-그림책의 저력과 가치를 공유할 예정이다.

그림책 베스트셀러 작가인 백희나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육공학을,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칼아츠)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했다. 애니메이션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매력적인 이야기가 돋보이는 그림책을 만들어왔다. 《구름빵》으로 대중에게 각인되기 시작했으며,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됐다. 이후 다양한 입체와 평면 작품에 애니메이션 요소를 결합한 독창적 예술 세계를 구축했고, 2020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 최고 아동문학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 ALMA)’을 수상했다.

본 전시는 관객 참여형 전시 구성과 부대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린 자녀를 둔 가족 단위 관람객에 특히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 Poly's pick

《구름빵》작가를 사랑하는 어린이와 어른 모두가 기다려온 전시. 직접 경험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 기간 : 2023. 6. 22.~10. 8.
- 시간 : 10:00~19:00(입장 마감 18:00)/월요일 휴관
- 장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전관



Exhibit



Exhibit



Exhibit



Musical

〈다원예술 2023 《전자적 숲: 소진된 인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준비한 <다원예술 2023 《전자적 숲: 소진된 인간》>은 지쳐가는 일상에 스스로 평정을 찾기 위해 ‘전자적 숲’으로 들어서는 ‘피곤한 현대인’의 여러 시도와 그 저변에 흐르는 문화 양상에 주목한다. 여기에는 마음 건강을 챙기는 방식,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 그리고 예술의 효용과 역할 변화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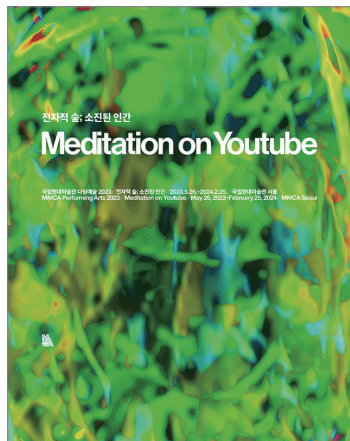
“여러분은 편안함에 이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요? 그 노력은 괜찮은 시도였나요?”

“지금 잠시 멈출 수 있습니까?”

“당신의 검색어는 무엇입니까?”

이번 전시는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사람들에게 ‘휴(休)’의 시간을 제안하고자 총 4부로 구성된 다양한 미디어아트를 통해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한 독일 철학자는 멈추고 새롭게 시작하는 능력이 결여된 현대사회를 과잉행동 사회라 지적한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극작가 질 들뢰즈는 그의 책 《소진된 인간》에서 “소진된 인간은 몸을 뉘 수 있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래서 밤이 내렸지만, 오그라든 손 위로 폭 속인 머리, 움쭉할 수 없는 손 위에 하얗게 텅 빈 머리를 얹은 이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다.”라고 썼다. 온전히 쉬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요즘, 우리의 예민함을 잠재우기 위한 시간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마련된 이 전시에서 누려보길 바란다.



♥ Poly's pick

진정한 ‘쉼’이 필요한 현대인들을 위해 도심 속에 마련된 숲속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 미디어의 신비한 효과와 함께.

- **기간** : 2023. 5. 26.~2024. 2. 25.
- **시간** : 1부. 백남준과 함께 (전자)명상하기(2023년 5~7월)
2부. 자율-쾌락으로서 음악 그리고 플레이리스트(2023년 6~8월)
3부. 노이즈 캔슬링과 앰비언트, 몸과 목소리(2023년 9~11월)
4부. 탐닉의 시대, 웰빙을 숙고하기(2023년 11월~2024년 2월)
- **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지하1층, MMCA 다원공간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 영국 내셔널갤러리 명화전〉

한영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영국 내셔널갤러리 소장 명화를 국내에 최초로 공개한다.

내셔널갤러리 런던과 공동주최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라파엘로 <성모자와 세례 요한>, 카라바조 <도마뱀에 물린 소년>, 렘브란트 <63세의 자화상>, 컨스터블 <스트랫퍼드의 종이공장>, 마네 <카페 콩세르의 한구석>, 반 고흐 <풀이 우거진 들판의 나비> 외에도 고야, 모네, 고갱, 르누아르, 토마스 로렌스의 작품 등 내셔널갤러리 런던 대표 소장품 52점을 만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만나기 힘들었던 르네상스시대 회화부터 관람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인상주의 회화까지, 15~20세기 초 유럽 회화의 흐름을 살피는 이번 전시에서는 서양미술 명작을 통해 미술의 주제가 신으로부터 사람과 사람의 일상으로 향하는 모습을 조명한다.

♥ Poly's pick

유럽 거장들의 미술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호사는 흔치 않을 것. 런던 갤러리 투어를 꿈꾸고 있다면 바로 여기가 잠시 런던이다.



▲ 빈센트 반 고흐, <풀이 우거진 들판의 나비>



▲ 마네, <카페 콩세르의 한구석>
◀ 카라바조, <도마뱀에 물린 소년>

- **기간** : 2023. 6. 2.~10. 9.[추석 당일(9. 29.) 휴관]
- **시간** : 월·화·목·금·일요일 10:00~18:00(입장 마감 17:20), 수·토요일 10:00~21:00(입장 마감 20:20)
-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아르떼뮤지엄 여수의 미디어아트 〈빛과 소리가 만든 영원한 자연〉

외부의 빛을 완벽히 차단해 어두운 전시관에 들어서면 꽃 무리와 함께 향긋한 내음이 반겨준다. 쏟아질 듯한 파도가 시원하게 내리친다. 밝은 날 볼 수 있는 여수의 절경 아래 서 있기도 한다. 직접 그리고 색을 입힌 동물들이 행진한다.

여수세계박람회장에 자리한 아르떼뮤지엄 여수에 들어서면 환상적인 공간으로 순간 이동된다. 바닥 넓이만 약 4628㎡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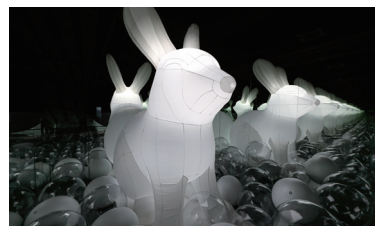
아르떼뮤지엄의 주제인 ‘영원한 자연(ETERNAL NATURE)’, 그중에서도 여수의 테마인 ‘오션(OCEAN)’에 맞춰 다채로운 전시가 펼쳐진다.

모든 공간에서 꽃이 실시간으로 피어나고 바람에 날리는 환상적인 공간 ‘FLOWER’, 초대형 미디어아트를 통해 표현되는 빛의 ‘GARDEN’, 온전히 파도의 물성과 소리로 채워진 오묘한 사유의 공간 ‘BEACH’, 8m 높이에서 쏟아지는 웅장한 미디어 ‘WATERFALL’, 빛과 선 그리고 그림자로 만들어지는 기하학적 움직임에 사운드가 더해져 다른 차원으로 움직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WORMHOLE’, 음악과 함께 페이퍼 아트의 조형미가 돋보이는 갯등에서 쏟아지는 빛이 마치 별빛을 연상케 하는 ‘STAR’, 형형색색 바뀌는 달빛 속 초대형 달토끼가 사는 ‘MOON’ 등 ‘시공(時空)’을 초월한 자연’을 콘셉트로 각각 다른 주제로 준비된 총 11개의 전시 공간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를 상시 관람할 수 있다.



♥ Poly's pick

수려한 자연 경관과 미식의 도시로 유명한 여수에 볼거리 하나를 더 추가한다. 빛과 영상, 소리에 몰입하는 색다른 경험이 포인트.



- **기간** : 연중무휴
- **시간** : 10:00~20:00(입장 마감19:00)
- **장소** : 아르떼뮤지엄 여수 전관

뮤지컬 〈그날들〉

누적 600회 공연, 평균 객석 점유율 90%, 총관객 55만 명 돌파, 뮤지컬 시상식 11개 부문 최다 석권이라는 기록을 세운 뮤지컬 <그날들>의 10주년 기념 공연이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열린다. 한국적 정서를 오롯이 담아낸 스테디셀러 창작뮤지컬 <그날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감동을 선사하는 김광석의 명곡들로 구성된 주크박스 뮤지컬이다. 여기에 청와대를 배경으로 20년의 세월을 넘나드는 영화 같은 스토리와 완성도 높은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국내 창작뮤지컬을 이끄는 대표 극작가 겸 연출가 장유정과 명곡에 가치를 더하는 편곡으로 대서사시를 완성한 음악감독 장소영 그리고 박진감 넘치는 액션을 안무로 승화시킨 안무감독 신선희가 의기투합해 선보인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유준상, 엄기준, 서현철, 김지현, 이정열, 오정혁, 지창욱, 김산호, 박정표, 김건우, 영재 등 10주년 기념 공연에 걸맞은 역대급 초호화 캐스팅을 완성했다.

전 시즌 출연이라는 진기록을 세운 유준상의 독보적인 존재감과 지난 시즌에서 완벽한 무역을 선보였던 오종혁·지창욱의 물오른 연기, 남다른 존재감을 보여주는 김지현, 극의 중심을 잡아주는 베테랑 배우들의 열연까지, 캐스팅만으로도 기대를 모은다. 여기에 더해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강렬한 연기를 선보인 대세 신예 김건우의 합류 등으로 뮤지컬 팬들에게 선물 같은 작품이 될 전망이다. 8세 이상 관람가.



♥ Poly's pick

한층 더 화려해진 라인업에 김광석의 명곡을 감상할 기회까지. 배우들의 출중한 가창력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감동을 선사한다.

- **기간** : 2023. 7. 12.~ 9. 3.
- **시간** : 화·목·금요일 19:30, 수요일 14:30, 19:30, 목·토·일요일 14:00, 19:00/월요일 공연 없음
- **장소**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영감을 준 책 한 권

같이 읽어요 폴리미래 북 클럽 Book Club

하루의 잠깐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맞춰놓는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바쁜 일상에서 진정한 쉼을 찾고 나를 채우는 시간.

책 속에서 좋은 글귀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 북 챌린지에 참여한 폴리미래 임직원이
'인생 책'으로 꼽은 여덟 권을 소개합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를 추천드립니다!

시장개발팀 심수연 주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후회하는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이 책은 과거의 미련은 내려놓고 현재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도와준 책입니다. 여러분도 현재, 더 나아가 멋진 미래를 향해 비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천드립니다.



《THE RATIONAL OPTIMIST: HOW PROSPERITY EVOLVES》를 추천드립니다!

대표이사 미첼 킬린

저는 인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맷 리들리는 협업을 통해 혁신하고 적응할 수 있는 인문학적 능력에 대한 저의 낙관과 믿음에 대한 생각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가 옳다, 옳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눈을 땔 수 없는 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이 책은 폴리미래와 같은 산업계가 부와 번영을 창출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합니다. 현재 우리는 문제뿐만이 아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 미로의 끝은 행복일 거야》를 추천드려요!

안전환경팀 정태형 대리

회사 후배로부터 선물을 받아 읽은 이 책에는 따뜻한 글귀가 많습니다. “마음에도 산책이 필요해”도 인상 깊었던 구절 중 하나입니다. 어렸을 땐 나만의 안식처가 있었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좀처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괴롭히면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이 책을 읽고 조금 더 ‘나’를 위해서 쉬기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곤한 일상에 지쳤을 때, 현실에서 지루함을 느낄 때 이 책을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래》를 추천합니다!

지속성장팀 박철민 팀장

세계 3대 문학상인 영국의 부커상 후보에 오른 천명관 작가의 《고래》를 폴리미래 가족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막상 읽을 때는 기괴하고, 웃기고, 약간은 블랙코미디 같은 작품이어서 가볍게 읽은 소설이었지만 이 작품이 세계적인 권위의 문학상 후보가 됐다고 합니다. 주말에 재미있는 소설책 읽고 스트레스 한 방에 날려 보내시죠~!



《마흔에 읽는 니체》를 권해봅니다.

안전환경팀 정준호 과장

“우리 삶에서 지금 이 순간은 단 한 번밖에 없다.” 고통의 긍정을 통해 스스로를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즐길 줄 아는 초인이 되길 바라며 시간이 될 때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하는 책은 《우주의 기원 빅뱅》입니다!

기술팀 정상호 차장

우주란 어떻게 생겼을까? 태양은 어떻게 빛을 내고 있을까? 이 우주에서 지구는 어떤 의미를 가진 행성일까?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재밌게 읽고 나면 우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한 수 있는 책! 폴리미래 가족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채터 당신 안의 휘방꾼》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산관리팀 황인성 사원

이 책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안하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잠깐의 안정감을 얻는 것이 아닌, 본인과 대화해 통해 보다 본질적인 개선을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부정적 생각과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내 안의 목소리와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은 분에게 꼭 추천드립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를 추천드립니다!

재무팀 채현주 주임

이 책은 기분과 태도는 별개이며 우리는 충분히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쓰인 책입니다. 폴리미래의 임직원 모두가 감정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눈떠보니 서른》을 읽어보세요!

시장개발팀 김대인 주임

꼭 서른이라는 나이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삶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책이라고 생각돼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과 함께 폴리미래를 이끌어갈 폴리미래 임직원분들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그림 찾기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2023년 여름호 사보, 재미있게 보셨나요?
두 사진 중 다른 부분이 5군데 있습니다!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메일
(pmc.magazine@polymirae.com)로
응모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 응모 시 반드시 이름, 상품을
배송 받으실 주소를 기재 바랍니다.



Metocene MF650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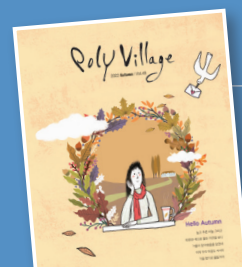
전기차를 더 조용하게, 더 깨끗하게 만드는
폴리미래의 자동차 흡음재용 솔루션

Innovative solution for automotive sound insulation
that provides a quieter and cleaner driving experience
in electric vehicles.



메탈로센 촉매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Metocene 제품군은 일반 PP에 비해
미세하고 균일한 섬유 구조를 만듦으로써
자동차 흡음재의 성능을 향상시키며,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이 매우 적은
친환경 제품입니다.

The Metocene product line produced using
metallocene catalyst technology provides
a fine and uniform fiber structure compared to
conventional PP, thereby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automotive sound insulation.
Additionally, these eco-friendly products have
a very low content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통권 49호 정답 및 당첨자 발표

▶ **당첨자** 인사노사협력팀 장유나, 내수영업팀 임종석, 변미경, 조연주, 오순정, 강성아